

강진청자축제, 강진 인구의 3배 인파 몰렸다

4년만에 대면 개최 10만여명 찾아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 73% 늘어 'AR 청자 찾기' '하멜 커피' 인기

올해 강진청자축제가 방문객 10만6000명 기록을 세우며 겨울 축제의 가능성을 보였다.

강진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일주일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열린 '51회 강진청자축제'가 방문객 10만6152명을 동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강진군 전체 인구(1월 기준 3만3157명)의 3.2배 수준이다.

가을에 열렸던 강진청자축제는 올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며 처음 겨울에 진행했다.

이번 청자축제는 기존 축제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축제 총매출액은 4억5184만원으로,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전인 2019년 매출(2억6172만원)보다 72.6%(1억9000만원) 증가했다.

30% 할인율을 내건 강진청자는 올해 1억9431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행사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3035만원 상당이 팔렸다. 먹거리 타운에서는 2억814만원 상당이 판매됐고, 하멜촌 카페 매출은 1903만원으로 집계됐다.

축제장 안에 있는 고려청자박물관은 휴일 없이 무료로 운영되면서 관광객의 필수 볼거리가 됐다.

천년 고려청자 본산지인 강진의 청자 역사를 배우기 위한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최근 일주일간 열린 '51회 강진청자축제'에 10만6152명이 찾았다. 방문객들이 '청자빚기 체험'을 하고 있다.

축제장 곳곳에서 열린 눈썰매와 집라인, 청자골 족욕 체험, 화목 가마 장작 파기, 불명캠프, 청자 성형물레 등 체험 행사가 인파가 몰렸다.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청자 찾기'는 이색 체험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모두 722명이 참여했다.

강진 주민들은 명민 줄다리기 대회와 떡가래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축제 흥을 돋웠다.

강진군은 '하멜 커피'를 새롭게 선보이며 강진에 유배되면서 서양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소개한 헨드릭 하멜을 알렸다.

축제 기간에는 '하멜 맥주' 무료 시음회를 열어

오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열리는 '강진 전라병 영상축제' 홍보도 했다.

MZ 세대의 인증 사진을 위해 마련한 '밤의 발견' 공간에는 해가 진 뒤에도 20~30대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축제 마지막 날인 1일에는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았다.

강진군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더 즐길 수 있도록 오후 4시에 예정한 폐막식을 생략하고 '즉석 노래자랑'을 열어 아쉬움을 달래도록 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축제 기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행사장에 들러 진행 상황과 안전을 살폈다.

그는 "개최 시기를 옮긴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많은 관광객이 와 줬다"며 "올해 축제를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보완해 내년에는 '꽃과 함께 하는 봄 청자 축제'로 더 많은 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올해 첫 축제인 청자축제를 필두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전라병영상축제와 금곡사 벚꽃길 삼삼리 축제(3월31일~4월1일), 월출산 봄소풍 축제(4월21일~4월23일), 수곡축제(6월30일~7월2일) 등을 잇따라 연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장흥군 호국원 유치 잔결음 입실·이천 등 방문 벤치마킹

장흥군이 전남 첫 국립 호국원 유치를 위해 다른 지역 호국원을 찾아 전략을 세웠다.

장흥군은 지난달 이천에 걸쳐 전북 임실과 경기 이천, 충북 괴산 호국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폈다.

국립 호국원은 현재 경기 이천, 충북 괴산, 전북 임실, 제주, 경북 영천, 경남 산청 등 전국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북 임실호국원이 오는 2024년 만장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지역에도 새로운 국립묘지를 설치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연말에는 강원 횡성에도 호국원 건립이 확정되면서 전남 유치의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

지난 12월 강원도 횡성에 건립이 확정되면서 전남 유일하게 국립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다.

장흥군은 광주와 전남 사·군에서 1시간 안팎 접근이 가능한 호국원 유치 최적지로 꼽힌다.

장흥에는 안중근 의사를 배향하는 국내 유일의 사우(祠宇인) 해동사가 있고,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 중 최후의 격전지로도 알려졌다.

호국원은 국립공원의 하나로, 지역에 호국원이 들어서면 방문객이 늘어 관광·숙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장흥군은 설명했다.

장흥군은 호국원을 유치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이병노 담양군수 소통행정

12개 읍면 '군민과 대화' 마무리

이병노 담양군수가 민선 8기 '첫 군민과 대화'를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군수는 지난달 중순 담양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을 찾아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 행정을 펼쳤다.

방문 이전에 127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현장에서는 175건의 건의를 받았다.

이 군수는 주민 건의사항을 듣는 동시에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성과와 올해 군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각 읍·면 경로당에서는 달라진 보건·복지제도를 소개하고 민선 8기 핵심정책과제인 향촌 복지에 대한 설명도 했다.

주민 건의사항은 현지 확인을 거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조치할 예정이다.

건의자에게는 사전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공유하고 건의 사항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한다.

이 군수는 군수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읍·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예산이 드는 민원사항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지난해 6월 민선 8기 담양군수 인수위를 통한 고충 민원은 총 238건을 접수해 70건을 완료했다. 나머지 168건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관리·추진하고 있다.

/담양=한동훈기자 hdh@



장성군이 올해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순차적으로 개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글교실 사회전. <장성군 제공>

장성군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개강

금융·건강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

장성군은 지난달 말부터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차례대로 개강한다고 5일 밝혔다.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여러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인과 다문화 가족 등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문해교육사가 직접 마을로 찾아가 수업을 벌인다.

한글 읽고 쓰기와 금융, 교통, 건강, 범죄 예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18세 이상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시정 감시 청렴 시민감사관 9명 위촉

나주시가 청렴·투명한 시정 구현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5기 청렴 시민감사관 9명을 위촉했다.

<사진>

이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 권익 보호에 나선다.

도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 세무 등 전문 분야(5명)와 시민 불편 사항과 시정 건의 등 일반 분야(4명)로 지난해 11월 공모를 거쳐 위촉했다.

시민감사관은 종합 부분 감사 참여나 자문을 비롯해 일상 시민 불편 사항, 공직자 청렴도 제고,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부패 유발 제도·관행 등을 시정·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부실 공사 방지 기동 감찰,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거나 협력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청년 월세 매달 20만원씩 지원

함평군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

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청년특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